

'동방신기 불참 vs 6人 2PM 참석' 드림콘서트 엇갈린 결정

입력 2009. 9. 29. 18:15 · 수정 2009. 9. 29. 18:15



[뉴스엔 김형우 기자]동방신기와 2PM이 드림콘서트 참여를 두고 엇갈린 결정을 내렸다.멤버 3인과 소속사와의 마찰을 빚고 있는 동방신기는 2009 드림콘서트 불참을 결정지었다. 이에 반해 재범의 탈퇴와 미국행으로 홍역을 치룬 2PM은 6인조로 콘서트에 오른다. 드림콘서트 측은 29일 뉴스엔과 전화통화르 통해 "동방신기는 출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2PM은 6명이 무대에 오르기도 결정지었다"고 밝혔다.

동방신기와 2PM의 드림콘서트 참여 여부는 가요 관계자들 사이에서 관심의 대상이었다. 동방신기, 2PM 모두 국내 톱 아이돌 그룹인데다 여러 악재로 곤욕을 치르고 있어 이번 콘서트 참여가 어려웠기 때문.

두 그룹의 참석 여부가 엇갈리면서 팬들의 반응 역시 상반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동방신기 팬들은 동방신기의 드림콘서트 참여를 간절히 원해왔기 때문. 팬들은 동방신기의 활동을 두고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압박하기도 했다.

2PM 팬들은 6인조 활동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일부 팬들이 이미 재범의 탈퇴철회 요구를 내세우며 6인조 2PM 활동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다. 이번 드림콘서트에 따른 팬들의 반응이 향후 2PM과 재범의 복귀수순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김형우 cox109@newsen.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손에 잡히는 뉴스, 눈에 보이는 뉴스(www.newsen.com)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